

전남, 외지인에 의한 감염 잇따라…휴가철 확산 차단 총력

광주, 주점관련 누적 확진 55명…고흥선 ‘수칙위반’ 11명 가족모임 전국,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최다 발생…접종 완료자 돌파감염도

7월말 8월초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가족과 지인을 만나려고 전남을 찾은 외지인들에 의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20~30대 청년층 감염과 주점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 19 확진(돌파감염), 방역 수칙 위반 모임 등 불안 요인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이날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9명은 감염경로가 광산구 주점 관련으로 분류됐다. 광산구 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5명이 됐다. 나머지 확진자 4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이다.

최근 연쇄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체육시설 관련, 기존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도 추가됐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486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2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순천 5명, 목포·여수·나주·고흥 3명씩, 광양·강진·진도 1명씩이다.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수 4명, 진도 3명, 목포 2명, 영암 1명이 추가되면서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2099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최근 휴가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이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집 방문 등을 위해 광양, 강진, 고흥, 순천을 찾았다가 가족과 지인을 연쇄 감염시키는 사례들이다.

고흥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고향집을 방문한 광주 3463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부모, 누나, 조카 등 가족 6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당시 고흥 고향집 모임에 순천 등에서 온 가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검토 중이다.

순천과 여수, 광양에서는 서울 도봉구 확진자



5일 저녁 광주시청 야외광장에서 운영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광주시청 선별진료소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1897번)가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방문한 이후 그의 친구 등 3명이 확진됐다. 강진에서는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자녀가 고향집에 다녀간 뒤 80대 부

친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남 2089번으로 분류된 이 80대 남성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조사됐다. 목

포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확진자 2명을 찾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신예약 시간당 200만명까지 가능

대리예약·동시접속 제한…18~49세, 9일부터 ‘10부제 예약’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시간당 200만명까지 예약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아닌 대리예약이나 동시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먹통 사태’ 등 오류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이같이 사전예약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서버 확충과 재배치, 데이터베이스(DB) 효율화 등을 통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해져 시간당 30만건에서 200만건까지 예약처리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9일 ‘10부제 예약’ 형태로 시작되는 18~49세 일반 청장년층 사전예약 시 최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해도 30~50분이면 예약이 끝난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 일자를 열흘에 걸쳐 나누는 ‘10부제 예약’이 도입되면 예약 대상자는 이날 0시 기준 1621만명 가운데 하루 최대 190만명(11.7%) 수준으로 유지돼 분산 효과가 생긴다. 10부제 예약 기반에서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대리예약·동시접속 제한’ 등도 도입돼 종전보다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은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이 아닌 간편 인증서를 통해 빠르게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전남도,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남도는 5일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 피트니스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사우나,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종사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우려된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 휴식공간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보건소의료원을 시작으로 도내 57개소 선별진료소 현장대응인력이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을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마음건강 회복을 비롯한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백신 생산 5대 강국 도약”

‘백신허브 추진위’ 출범…2025년까지 2조2000억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보고대회’에서 “백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백신 협력체계 강화, 백신 자주권 확보 구상 등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백신 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달 중 국내 기업 개발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차세대 백신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임상시험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자금 지원, 원부자재 국산화, 특허 분석 지원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비록 늦더라도 이번 기회에 mRNA 백신까지 반드시 개발해 끝을 본다”는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금융위원장 고승범·인권위원장 송두환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되는 등 금융정책 양대 수장이 모두 새 얼굴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에 박기영 산자부 기획조정실장을 기용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발탁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발탁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는 공석인 감사원장 후임은 제외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訃告

권병례 권사(故 공립 前 라인건설 會長의 미망인)께서
2021년 8월 5일 정오 12시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殯 所 : 서울삼성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7호
- 發 軻 : 2021년 8월 7일(토요일) 오전 6시
- 葬 地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987-2(나주 봉황 선영)

子	공병곤 공병학 공병도	外孫	오혜령 오정권 오혜민 오혜림
女	공선에 공선옥 공선경 공선영		김정우 김조희
子婦	이선희 오정화 양소영		조민지 조윤상
私尉	오기흥 조명대 양성우		양나운 양훈지 양현석
孫	공유진 공승용		
	공유경 공승훈 공유민 공승현		
	공승운 공유림		

(주)라인건설 동양건설산업(주)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24시간 상담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